

# 3·1절마라톤·호남예술제·무등기야구...문화·체육의 산실

## 문화창달 63년

광주일보의 역사는 '호남 문화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척박한 광주·전남지역 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예향의 모태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꾸준히 조명했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원천인 문화자산을 일찍부터 부각함으로써 광주·전남의 문화적 위상을 다진 것이다. 그 뿌리는

광주일보는 호남예술제를 비롯해 전국 학생연극제(20회 개최) 등을 바탕으로 예술영재 발굴과 지원사업을 주도했다.

광주일보는 창간 5주년인 지난 1957년 3월 첫 신춘문에 공모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58년째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춘문예에서 배출한 인물들은 박봉우, 이성부, 김준태(시인), 희곡 한옥근·채희운(희곡), 박덕은·김옥애(동화), 백시중·설재복·문순태(소설)씨 등 대한민국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들이었다.

지방 신문사로는 유례가 드문 글로벌 문화사업을 펼쳐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자

남북도서관, 광주 최초 사설공립도서관...학생들로 장사진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임 행진곡' 작곡 김종률씨 등 발굴

우즈벱·카자흐스탄에 한글학교, 글로벌 문화사업 자금심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는 광주일보의 사시(社是)에 응축돼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1970년 지역민들의 문화와 학문의 터전을 닦기 위해 남북도서관(옛 전일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공간은 광주지역 최초 사설공립도서관으로 전일회관(현 전일빌딩) 7층에 있었다. 당시 도서관 입장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장사진은 대표적 도심풍경이 됐다. 전일도서관은 지난 1983년에는 국내 인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처음으로 자동차 이동도서관을 운영,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보급운동을 펼쳤다.

남북미술관(옛 전일미술관)은 상설전시 가능한 광주 최초 사설미술관으로, 지난 1974년 전일회관 2층에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미술인들은 비로소 '다방전시'에서 벗어나 어엿한 전용공간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지역미술인들의 자긍심의 공간이었던 남북미술관은 의재 허백련 선생 개관 초대전을 열기도 했다.

공심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1991년 창사 39주년 기념사업으로 북한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글 학습 설립 캠페인'과 모금운동을 벌여 우즈벱카스탄 타슈켄트 현지에 학교를 열었다. 이후 카자흐스탄 '알마타 고려리산 한글학교' 등 모두 6개 한글학교를 개교했다.

광주일보 자회사였던 VOC전일방송이 지난 1978년 개최한 대학가요제는 청년문화의 물꼬를 튼 무대였다. 광주항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씨는 '소나기'를 불러 제2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1회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모모'(김만준)는 전국 TV·라디오 가요자트를 휩쓸었다.

광주일보는 이밖에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통해 다방면의 지역 인재들을 길러냈고 현재도 그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들이 지난 1970년 개관한 남북도서관(옛 전일도서관) 입실을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허백련 선생(오른쪽세번째)이 남북미술관 개관 초대전에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1966년 5월에 열린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겸 '미스전남 선발대회'

## '예술 꿈나무' 등용문

### 호남예술제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종합예술축제다. 연간 참여인원만 56만여명에 이르는 호남예술제는 명실상부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올해로 개최 60년을 맞은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통과의례였고 대부분 호남예술제 경연을 통해 예술가로의 꿈을 키웠다.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창사 3년 후 첫발을 뒀다. 학생예술경연대회(1954년 4월), 학생문예경작대회(1955년 9월)를 개최했던 '옛 전남일보'는 단편적인 행사를 묶은 종합예술축제 '호남예술제'를 탄생시켰다.

1956년 첫 행사는 어린이부에서 출발했다. 경연 분야는 음악,



무용, 동극, 글짓기, 사생대회 등 모두 5개 분야였다. 그동안 호남예술제에서 배출한 작가들은 손꼽기 어려울 정도. 여수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대모로 불리는 김남윤 교수, 강연균 화백, 최영훈 전 조선대 미대교수 등이 있다.

## 고품격 문화예술 월간지

### 예향

광주일보가 만드는 '예향(사진 창간호)'은 31년 역사를 헤아리는 고품격 문화예술잡지다. 창간 당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문화예술매거진이었다. 창간 5년만인 지난 1989년에는 출판전문잡지가 꼽은 전국 6대 잡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대를 대표하는 전국지 '샘이 깊은 물', '객석'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 2013년 11년 만에 복간한 '예향'은 이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광주·전남 등 호남을 비롯한 각지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문화예술잡지로 발돋움했다.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콘텐츠와 수준 높은 문화담론, 세련된 편집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예향이 사랑받는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예향은 남도의 문화와 숨결이 깃든 특화된 기사를 발굴, 생활 속에서 문화가 향유되고 소통되는 장을 구현했다. 2014년 복간 1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선보인 '신남도문화여지도'는 남도의 22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역사와 문화, 지역 음식과 특산물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 '사람이 브랜드다',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 '아시아 스토리로드' 등 다양한 기획기사를 발굴, 담론 제시는 물론 문화소통의 견인자를 담당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주인공들의 삶과 예술을 다룬 '예향 초대석', 남다른 열정과 고집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가꾸는 '남도의 장인들' 등 문화와 숨결이 깃든 특화된 기사를 선보이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스포츠, 문화, 교육의 역동적인 어울림의 현장!

전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

광주유니버시아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체육인들은 광주U대회를 함께 합니다